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세브란스 병원

광혜원·제증원 136년



안녕하세요?

세브란스병원 약무국장 손은선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며 인사드립니다.

세브란스병원은 1885년 이래 136년 동안 변함없이 대한민국 의료를 선도하였으며, 의료 세계화를 위해 2007년 국내 최초 JCI 인증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5번의 JCI 인증에 성공하는 등 “더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약무국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질 높은 약료를 제공하기 위해 약제업무 자동화 도입, 효과적인 약물요법의 시행과 팀활동 약사 및 전문약사 양성을 통해 양질의 환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대학의 훌륭한 인재가 본 병원 정규직 약사 및 전공 약사로 지원하여, 세브란스 가족으로서 함께 만드는 “더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하여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고귀한 사명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0년 8월 26일

세브란스병원 약무국장 손은선